연변 '관광의 날' 주제활동 및 안도문화관광체육시즌 가동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중국 관광 행복한 생활' 2024 년 5.19 중국 관광의 날 연변 주제활동 및 안도현장백산문화관광체육시즌 가동식이 안도현 장백산대관동문화원에서 펼쳐졌다.

가동식에서 올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화 촉진' 주급 시범기지로 확정된 장백산대관동문화원에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주최측은 또 가무공연, 민속놀이, 미식시장, 연구학습 체험행사 등 일련의 흥미로운 행사들을 개최했다.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국장 송염은 축사에서 "앞으로 각 현, 시 문화관광자원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혁신적인 홍보 및 추천, 관광지 건설, 음식 선정, 커피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연변으로 유치하고 관광을 통해 각 민족의 광범위하고 전면적이며 심층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년간 안도현은 장백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강화하고 경내의 18 개 국가 A 급 관광지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확대했으며 독특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여 련속 6 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급 도시'로 선정되고 3 년 련속 '중국 관광발전 잠재력 100 강 현'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각종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관광 상품을 풍부히 하고 써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에게 더욱 많은 선택과 체험을 제공하고 안도 관광업의 발전 수준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비를 이끌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지방경제의 끊임없는 성장을 추진했다.

안도현의 문화관광사업은 연변의 문화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번 활동의 개최를 빌어 안도현은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더욱 추진하고 문명관광과 록색관광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한편 행복한 삶에 대한 군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한편, 안도현은 중국 관광의 날을 맞아 당일 각 A 급 풍경구 입장료 무료, 표류지 반값의 우대 조치를 출범하는 등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 김영화기자

심양—백산 고속철도 후안턴넬 관통

북경—장백산 4 시간 이내로 단축

11 일, 중국철도건설주식유한회사에 따르면 중국철도 16 국에서 건설한 심양-백산 고속철도 후안턴넬이 1,015 일간의 시공 기한을 거쳐 순조롭게 관통됐다.

이 턴넬은 심양-백산 고속철도 료녕 구간에서 두번째로 긴 턴넬이자 전체 구간에서 단일선 굴곡이 가장 큰 턴넬이기도 하다. 관통된 이후 후속적인 비자갈궤도(无砟轨道) 시공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게 된다.

중국철도 16 국 대상건설현장 책임자 오정원의 소개에 의하면 후안턴넬은 료녕성 무순시 무순현 경내에 위치해있는데 총 길이가 9,125 메터, 매몰깊이가 278 메터에 달한다. 암석층 파렬지대와 지표면의 매설 구간을 뚫고 붕괴될 수 있는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전체 턴넬 구간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세에 놓여있는 데다가 시공 기한이 비교적 짧은 등 시공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삼괴석(三块石)국가삼림공원(장백산 로룡강지역에 위치)의 변경선에서 불과 60 메터 정도 떨어진 지역에 건설하게 되므로 생태환경보호 요구가 까다로운 시공건설이기도 했다.

2021 년 8 월에 정식 착공된 이후 대상건설팀은 지질예보, 암석검측통제, 품질검사 등을 사전에 미리 조사했고 턴넬 AI 영상검측, 유독 및 유해기체 검측 등 지능화 검측 시스템을 설치해 상하측 동시 채굴 선진적인 공예공법을 혁신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턴넬의 안전하고 고능률적인 시공건설 템포를 담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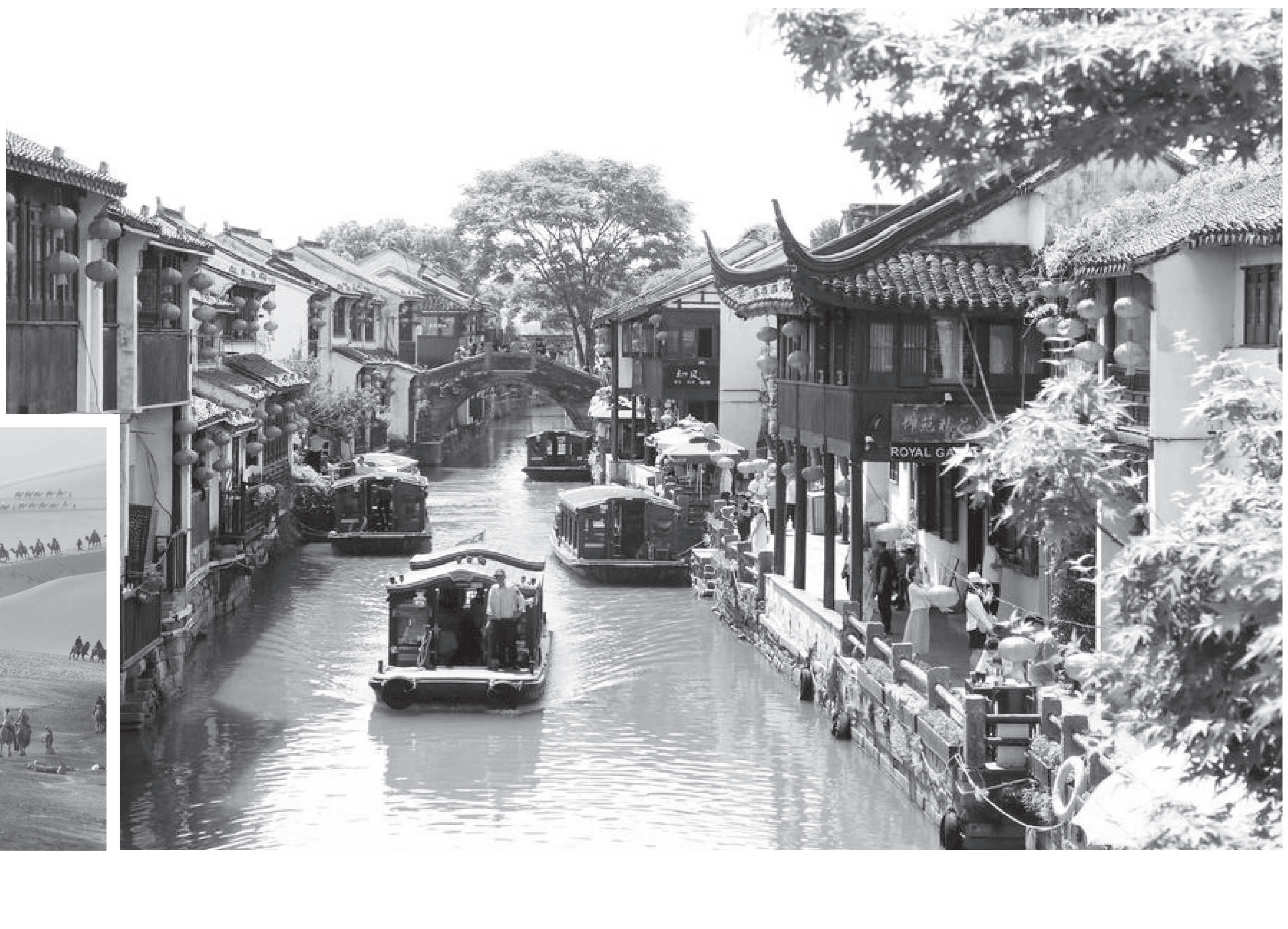
심양-백산 고속철도는 료녕성 동북부와 길림성 동남부를 이어주게 된다. 이 고속철도는 국가 중장기 철도망 동북 동부의 쾌속 철도통로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며 동북지역 '14.5' 기간의 중점 건설대상이기도 하다.

심양-백산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향후 동북의 관광명승지 장백산 기슭까지 직통으로 다다르게 된다. 북경-장백산 최단 운영시간은 4 시간 이내로 단축되며 심양-장백산 최단 운영시간 또한 1 시간 반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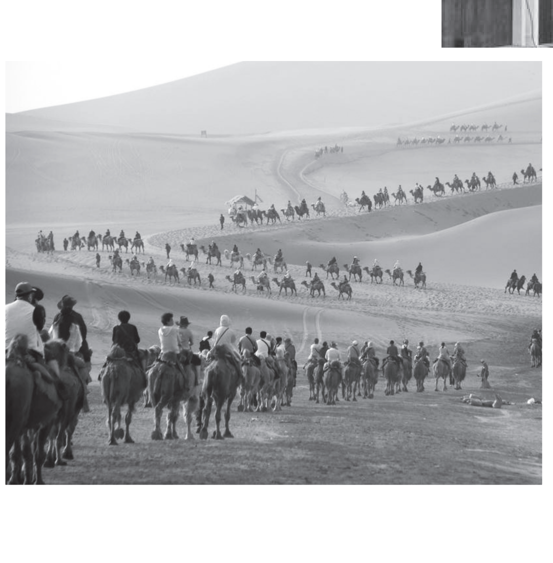
/ 신화사

전국 각지서 '제 14 회 중국 관광의 날' 행사 열려

19 일, '중국 관광의 날' 행사가 14 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마음껏 유람하는 중국, 행복한 삶'이다.



▶ 19 일, 강소성 소주시 산당거리 풍경구에서 관광객들이 유람하고 있다.



▼ 19 일, 관광객들이 감숙성 돈황시 명사산 월아천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 신화통신

우리 나라 류형이 풍부한 박물관체계 초보적 구축

국가문물국이 18 일 2023 년 중국박물관사업발전 최신 데이터를 발표한 데 따르면 2023 년, 새로 등록된 우리 나라 박물관은 268 개에 달하고 각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수는 잇달아 신기록을 경신했다. 우리 나라는 류형이 풍부하고 주체가 다원화적이며 보편적이고 균등한 박물관체계를 이미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국가문물국의 데이터를 보면 2023 년, 전국적으로 등록된 박물관수는 2012 년의 3,866 개로부터 6,833 개로 증가했고 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으면서 박물관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2023 년 한해 전국 박물관에서 개최한 진렬과 전시행사는 4 만여차이고 교육행사는 28 만여차에 달했으며 관람객은 연인수로 12 억 9,000 만명에 달했다. 국가문물국 국장 리군은 지난 '5.1'절 련휴 기간 전국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연인수로 5 천만명이 넘어 '박물관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 중대한 전시와 연구활동, 정품문화창의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새시대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서 불가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였다고 말했다.

제 5 진 국가 1 급 박물관 명단이 18 일 공식 발표된 가운데 2023 년 12 월, 우리 나라에서는 제 5 진 전국 박물관 등급평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심사를 거쳐 1,148 개 박물관이 신청 요구에 부합되였다. 이번에는 신청단위수가 많고 주체가 다원화적이였으며 주제도 다양했다. 중국박물관협회 리금광 비서장은 1 급 박물관 신청을 한 234 개 박물관에 대해 자료 심사와 전문가 평가심의, 온라은 채점, 현장 재확인, 종합평가 등 여러 고리를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며 최종 123 개 박물관이 국가 1 급 박물관 기준에 합격, 현재까지 우리 나라 국가 1 급 박물관 총수는 327 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 중앙방송

'훈춘의 밤' 문화관광축제 환상적 분위기 선물

'젊음의 랑만, 훈춘의 밤 려행' 주제로 새로운 활력 주입

지난 9 일, 와스토크몽환섬음악축제를 시작으로 12 일까지 이어진 '젊음의 랑만, 훈춘의 밤 려행'을 주제로 한 '훈춘의 밤' 문화관광축제는 5 월의 변경도시에 재차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다.

'훈춘의 밤' 문화관광축제는 5 월 9 일부터 11 일까지 이어진 로씨야풍정의 공연 및 로천전자음악파티로 구성된 와스토크몽환섬음악축제, 9 일부터 12 일까지 이어진 훈춘시 제 2 회 유럽거리페스티벌 등으로 마련됐는데 와스토크몽환섬음악축제는 시민과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고 거리공연, 훈춘문화창의작품전, 중로 문예공연, '유난히 붉게 핀 석류꽃' 훈춘시테마사진전으로 구성된 제 2 회 유럽거리페스티벌은 5 월의 밤 훈춘시 유럽거리를 활기로 차넘치게 했다.

한편 지난 9 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열린 와스토크몽환섬전자음악파티는 관객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와스토크몽환섬의 로씨야풍정의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젊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음악이 가져다주는 흥분과 즐거움을 느끼며 환호를 련발했다.

현장에서는 공연복장을 입은 배우들이 로씨야 민족무, 노래, 마술 등을 공연했고 단결광장에서는 로천전자음악파티가 펼쳐졌는데 시민과 관광객들은 DJ 의 움직임에 따라 두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며 뜨거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11 일까지 지속된 이번 행사는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물함으로써 독특한 로씨야풍정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관광객들의 필수방문지로 새롭게 등장한 와스토크몽환섬의 존재감을 한껏 과시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년간 훈춘시는 특색관광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문화활동 형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혁신했으며 다원화된 체험으로 야간 소비를 활성화시켜 훈춘 관광의 인기를 모으고 대중들이 즐기도록 했다.

/ 연변일보

연길 10 개 커피기업 중국(곤산) 커피산업대회에 참가

연길시의 10 개 커피기업이 16 일부터 19 일까지 열리는 제 3 회 중국(곤산) 커피산업대회 및 2024 곤산국제커피산업전시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혁신·령감·미래'를 주제로 '한알의 원두에서 한컵의 커피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한데 모으고 최신 추세를 탐색하며 혁신적인 령감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현대 커피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커피산업의 전면적인 승격에 조력함으로써 중국 커피산업의 고품질, 지속가능한 발전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커피 원산지 대표단과 우수한 커피기업이 참가해 커피콩, 커피제품, 커피 생활과 문화, 장터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연길 기업은 청차목, 521 커피, 국향커피공장, C&C coffee 등 10 개로 '한컵의 커피'로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과시하고 연변 특유의 사과배커피, 연변 풍미 커피와 특색 커피콩 및 문화혁신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 연변조간

장백산 서쪽풍경구, 5 월 21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폐쇄!

5 월 14 일, 길림성장백산풍경구관리유한회사의 공고에 따르면 장백산 관광의 쾌적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 년 5 월 21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장백산 서쪽풍경구의 도로를 전면 수리하게 된다.

공사 기간중 장백산 서쪽풍경구를 페쇄하고 도로를 봉쇄하며 공사 차량을 제외한 모든 사회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광범한 관광객들이 합리적으로 일정을 계획하기 바란다.

/ 인민일보